트럼프 또 '나토 탈퇴' 시사…'세계 경찰' 대신 '중국 견제'

'거래중심적 외교' 토대 핵심동맹국에도 '분담' 압박…"역내문제는 해당 국가 스스로 해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미국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했다. 자국을 정점으로 한 세계자본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자본주의 부활과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급성장한 소련과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해 군사적 동맹체제를 구축했다.

미국이 유럽에서 거점으로 삼은 국가는 독일이었다.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당면과제는 전후처리와 평화체제 구축이었다.

미국은 우선 마셜 플랜과 다양한 원조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다.

그리고 독일의 분단 속에 미국은 유럽의 동맹국들을 집단안보체제로 묶어냈다. 1949년 4월 체결된 북대서양조약(North Atlantic Treaty)을 토대로 한 나토(NATO)를 말한다.

조약의 핵심조항, 5조에서 동맹국들은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것과 각 동맹국은 공격에 대응하여 "무력의 사용을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한다"에 동의했다.

1949년 소련의 핵실험 성공,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동서 냉전구조는 더욱 확고해졌고, 그럴수록 미국에게 나토의 존재감은 커졌다.

냉전이 붕괴된 이후에도 나토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았다. 1991년 나토는 북대서양 협력이사회를 설립했다.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나토 가입국은 확대됐다.

현재는 유럽과 북미 지역 32개 회원국들의 정치 및 군사동맹으로 자리잡았다. 그 중심국가는 세계 최강 미국이다.

그런데 그런 미국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방영된 NBC 인터뷰에서 취임 후 미국이 나토에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를 묻는 말에 다시 한번 '탈퇴 가능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만약 그들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토 탈퇴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absolutely)"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시절이던 2018년 7월 나토 정상회의 때도 나토 탈퇴를 위협했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대통령이 나토를 탈퇴하려면 상원 3분의 2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안만으로 트럼프를 막을 수 없다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공식 탈퇴가 아니더라도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나토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군의 나토 합동군사 훈련 참가를 막는 등 다양한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가 취임 이후 방위비 압박 등을 수단화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간 관계가 달라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또 트럼프의 이런 행보는 동맹국에도 안보 무임승차는 안된다는 '거래 중심적 외교'라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지만 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오랜 세월 '세계 경찰' 역할을 해온 미국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특히 유럽과 중동 문제에 있어 역내 국가가 스스로의 역량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미국은 패권도전에 나선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 바탕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주도해온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흔들리고 중국의 패권도전 속에 점차 다극질서가 형성되는 국면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리아 반군수장은 알카에다 출신 '자칭 온건파'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
9·11 등 계기 이슬람 근본주의 심취
내전 틈타 시리아에 조직 구축
테러분자 전력에도 내전 종식 기대

HTS 수장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가 모스크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리아 정권을 무너뜨린 구심점은 반군 하야트타흐리트알샴(HTS)의 수장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42)였다.

알졸라니는 시리아의 폭압적 독재와 참혹한 내전을 종식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인사이지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전력을 지닌 국제사회의 경계 대상이기도 하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더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본명이 '아흐메다 알샤라'인 알졸라니는 1982년 골란고원에서 시리아 망명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후 그의 가족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주했다가 다시 시리아로 돌아갔다. 알졸라니의 아버지는 저명한 경제학자, 어머니는 지리 교사였으며 시리아로 돌아간 그의 가족은 다마스쿠스의 부촌에 거주했다.

어린 알졸라니는 두꺼운 안경을 쓴 내성적이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다고 한다. 10대 시절이었던 2000년 팔레스타인 인티파다(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반이스라엘 독립투쟁)와 2001년 9·11테러라는 두 주요 사건의 영향을 받아 알졸라니는 점점 종교적 헌신과 전투적 이념에 경도되기 시작했다.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자(살라피스트)가 된 그는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2003년에 대학을 그만두고 이라크로 건너가 국제테러단체 알카에다에 합류했다.

2006년에는 폭탄을 설치하다 미군에 체포돼 이라크 내 감옥에 5년에 수감됐고 2011년에 석방됐다.

얼마 뒤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하자 무장 대원 6명을 끌고 시리아로 돌아갔고 이곳에서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알누스라전선(자바트 알누스라)을 창설했다.

본명 대신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라는 가명을 사용하게 된 것도 이즈음이다.

2013년에는 어두운색 스카프로 얼굴을 감싼 채 알자지라와 첫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그는 시리아가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의해 통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알졸라니의 통솔 아래 알누스라 전선은 급격히 그 세를 확장했으며 시리아 내전 초기 만들어진 단체 중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다는 평을 받는다.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하자 알졸라니는 2016년 알카에다와의 연계를 공식적으로 끊으면서 과격한 '글로벌 지하디스트'로서의 임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알누스라 전선의 이름을 아랍어로 '시리아 해방 의회'를 뜻하는 HTS로 바꿨다.

이 같은 결정은 시리아 내 통치에 집중하면서 국제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전까지는 베일에 싸인 인물이었던 알졸라니도 HTS 내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지도자 지위를 굳혔고 이후 시리아 북서부에서 사실상의 통치자로 부상했다.

HTS는 설립 이후 반군 장악 지역인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친(親)알카에다 세력을 물리치면서 시리아구원정부(SSG)라는 이름으로 이들리브 상당 지역을 통치하게 됐다.

HTS는 자신들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분증도 발급했다.

여성이 히잡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것을 요구하지 않고, 금연을 강요하지 않는 등 비교적 온건한 정책을 펴왔다. 2022년 1월부터는 거리에서 풍속 경찰의 순찰도 중단했다고 한다.

온건책으로 인해 시리아 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기민한 책략가로 생각되지만, 반대파들은 알졸라니를 무자비한 기회주의자로 본다.

그러면서도 시리아인들은 아사드의 퇴진이 이뤄진 이상, 실용적 지도자를 표방하는 알졸라니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연합뉴스

"늦었다고 포기 마세요"

'95세에 라틴그래미 신인상' 앙헬라 알바레스 별세

라틴팝 음악계 주요 시상식으로 꼽히는 라틴그래미에서 2년 전 95세의 나이로 신인상을 받은 앙헬라 알바레스(본명 앙헬라 엘비라 포르티야 에차바리아·사진)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빌보드 스페인어판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8일 보도했다. 향년 97세.

그의 손자이자 작곡가인 카를로스 호세 알바레스는 빌보드 스페인어판에 "이 세상을 제 할머니와 공유할 수 있게 돼 제겐 행운이었다"며 "할머니는 제게 선물 같은 사람"이라고 고인을 추모했다. 그는 할머니의 최초이자 유일한 앨범을 제작한 바 있다.

1927년 6월 13일 쿠바 카마구에이에서 태어난 앙헬라 알바레스는 결혼 후 4명의 자녀를 낳은 뒤 쿠바 혁명을 피해 미국으로 이민왔다.

청소 같은 잡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고된 삶 속에서도 기타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알바레스는 90세 때 로스앤젤레스(LA) 아발론 할리우드에서 첫 콘서트를 열었고, 94세가 된 2021년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붙인 첫 앨범을 냈다.

미국 연예매체 피플은 알바레스가 과거 수십 년간 나름대로 작곡하며 음악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다고 소개한 바 있다. 곡들은 친구나 가족 등에게만 들려줬다고 한다.

알바레스의 삶과 음악 여정은 '미스 안젤라'(앙헬라의 미국식 발음)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2021년)에도 담겼다.

그가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2022년 라틴 그래미에서 최고령 신인상을 받았을 때다. 95세의 백발 '샛별'은 눈물을 훔치는 청중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싸웠다"며 "때가 늦었다고 할 것은 결코 없다"는 소감을 남겼다. /연합뉴스

한국, 관광 '주의 국가' 되나

블룸버그 "내년 1분기 중국 관광객 급감" 예상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둘러싼 불안정한 정세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사회적 불안으로 내년 1분기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지난 5일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 1분기 한국을 방문할 중국인 관광객이 83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9%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내년 2분기부터 관광객 유치 활동과 위안화 대비 원화 절하 등에 힘입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9일 오전 코스피는 장중 2383.82까지 떨어져 지난해 11월 3일(2351.83)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코스닥지수도 3% 넘게 급락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은 나란히 연저점을 찍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1계>

※QR코드 :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 원]	비고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4타경 1413	1	동구 충장로4가 25 307㎡	대	3,274,769,400	일괄매각.도시계획시설상도로에저촉된미미한면적있음
		동구 중앙로 173 1~3층각265.09㎡ 지하실 217.58㎡[감정평가서참조]	점포, 사무실	3,274,769,400	
2024타경 67147	1	광산구 사암로271, 상가동 2층 203호 160.83㎡	상가	356,000,000 356,000,000	
2024타경 67185	1	북구 서양로20, 제4층 제416호 18.55㎡	오피스텔	44,000,000 44,000,000	
2024타경 69600	1	나주시 상야2길7, 7층비824호 [빛가람동,중흥에스-클래스메가티움1차] 28.4189㎡	오피스텔	73,000,000 73,000,000	
2024타경 69747	1	광산구 임방울대로826번길60-5, 제7층 제726호 [월계동,무등에코클래스] 19.9836㎡	오피스텔	51,500,000 51,500,000	
[대지/임야/전답]					
2024타경 63855	1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60-10 1441.7㎡[장승현 1/2지분전부]	답	37,780,500 37,780,500	일괄매각.지분매각[매각지분에한함].농지취득자격증명요.맹지
		동소 60-13 1077.0㎡[장승현1/2지분전부][물건번호1: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답		
	2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60-12 288.0㎡[장승현 1/2지분전부.매각제외제시외미등기건물및컨테이너있음]	대	6,912,000 6,912,000	지분매각[매각지분에한함].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2024타경 67062	1	나주시 송월동 1097-3 265.6㎡[전용허가얻지않고토지현황변경된경우원상회복명령발해질가능성있다는나주시송월동사실조회회신있음]	대	292,160,000 292,160,000	매각제외컨테이너1동소재
	2	나주시 대기동 549-12 1042㎡[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85,444,000 85,444,000	전으로사용중,지상식재수목매각제외
2024타경 67574	1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050-15 449㎡	전	117,189,000 117,189,000	전으로이용중.농지취득자격증명요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24타경 67901	1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958-30 2층 203호 22.32㎡	다세대	53,000,000 53,000,000	일괄매각.지분매각[목록4매각지분에한함].대지권미등기,대지권유무알수없음.최저매각가격대지권가격포함
		동소 958-30 1층 101호 36.04㎡	다세대		
		동소 958-30 2층 201호 22.32㎡	다세대		
		동소 958-30 322㎡[공유자화신건설(주)2416/6430지분][물건번호1: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상목록1~3사람거주하지않는공가상태]	대		
[기타]					
2024타경 1598	1	서구 화정동 73-19 128㎡	대	440,265,700 440,265,7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서구 내방로338번길 2-1 일용품소매점,주택 1~2층각70.2㎡ 3층55.58㎡ 부속건물 단층 변소1.2㎡ 제시외 화장실등37.3㎡	기타		
2024타경 1789	1	광산구 옥동 1233-7 1652.6㎡	공장용지	1,589,782,120 1,589,782,1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3동및기계기구4개포함[감정평가서참조,목록기재제시외기계기구이외기계기구매각제외]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37 [옥동,가동] 1층공장 446.66㎡ 2층창고65.2㎡ 부속건물 사무실1,2층각149.37㎡ 제시외 창고등38.7㎡ 수전설비등4식[2층건축물대장상용도창고,일부사무실]	기타		
		광산구 옥동 1233-7 나동 단층 463.28㎡	공장		
2024타경 1895	1	화순군 동면 충의로1011-17, 비동 1층 1호 549.74㎡ 공장저당법제6조목록별지기재와같음 제시외 가추등154.5㎡	냉동창고, 기계실	1,922,864,650 1,922,864,650	일괄매각.목록3.6에이동1층으로집합건축물대장상등록된건축물현황도면호수미등재,현황상전유부분위치특정할수없음.대지권목적토지산72-7번지[임야,6,284㎡]토지대장상46-3번지[공장용지,6,511㎡]로등록전환됐공부상대지면적[7,119㎡]과현대지면적[7,346㎡]서로상이[감정평가서참조].목록6일부[창고,3.92㎡]현황멸실상태
		동소1011-17, 에이동 2층 1호 1834.78㎡ 공장저당법제6조목록별지기재와같음 제시외 가추 272.93㎡	창고시설		
		동소1011-17, 에이동 2층 2호 234.14㎡ 공장저당법제6조목록별지기재와같음 제시외 냉동설비1㎡	냉동창고, 도축장		
		동소1011-17, 시동 2층 1호 119.70㎡ 공장저당법제6조목록별지기재와같음	사무실		
		동소1011-17, 시동 1층 1호 사무실,식당,기숙사 164.64㎡ 공장저당법제6조목록별지기재와같음	기타		
		동소1011-17, 에이동 1층 1호 공장,냉동창고1528.96㎡ 사무실,숙직실15㎡ 창고13.92㎡ 화장실8㎡ 공장저당법제6조목록별지기재와같음[물건번호1:제시외건물및기계기구포함[제시외기계기구목록상기계기구정상작동여부불명,기계기구목록상기계기구1-1,4일부및1-3,6,10,2-1,2,5소재불명으로매각제외[감정평가서참조]]	기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4타경 68461	1	남구 수박등로47번길 22 단층 1층68.67㎡ 지하실22.44㎡ 부속건물 단층 변소0.91㎡[김찬2/9지분전부] 제시외 창고 등11.18㎡	점포,주택	42,901,620 42,901,620	일괄매각.지분매각[매각지분에한함].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남구 월산동 978-4 119㎡[김찬2/9지분전부][물건번호1:제시외건물포함]	대		
[아파트]					
2024타경 2768	2	동구 구성로204번길22, 1동 4층 404호 46.49 19㎡	아파트	161,000,000 161,000,000	
2024타경 3662	1	광산구 왕버들로251번길27, 제506동 제21층 제2104호 [신창동,신창5차호반베르디움] 84.9760㎡	아파트	375,000,000 375,000,000	
2024타경 69709	1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181-19, 101동 9층 1007호 [공간아파트] 84.99㎡	아파트	150,000,000 150,000,000	
2024타경 70419	1	남구 광복마을길63, 102동 5층 506호 [진월동,광명아파트] 69.475㎡[공유자신근영2/13지분전부]	아파트	30,600,000 30,600,0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2024타경 70471	1	동구 경양로234, 108동 12층 1201호 [계림동,그랜드센트럴] 39.8652㎡	아파트	285,000,000 285,000,000	현황조사보고서상관리비미납된상태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4. 12. 24.[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4. 12. 31.[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해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해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해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해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해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어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해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어, 관심있는 물건에 관해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0.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유승주